고대의 '방언'과 그 유사 지칭어

이승재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古代의 여러 자료에 나오는 '方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薛聰이 국어학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 것은 '方言'으로 경전을 읽었다는 기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언이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하지 않아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과 여러 문자 자료를 통하여 피상적으로 추정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글에서는 설총의 '방언'이 무엇을 지칭한 것인지 추정해 보고자 한다.

'方言'이란 용어는 古代의 여러 자료에 자주 나온다. 그런데도 이들을 모아서 검토한 논의는 안병희(1987)을 제외하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방언의 여러 용례를 검토함으로써 古代人들이 방언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고대의 방언은 우리말 또는 우리말 표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음을 밝힐 것이다. 즉 고대의 방언은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借字表記와 같은 개념이고 借字로 표기된 우리

말을 두루 지칭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古代 자료에는 方言 이외에도 '鄕言, 俚言, 俗文, 方音' 등의 지칭어가 나온다. 이들이 방언과 어떻게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추적하는 일도 방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소략하게나마 이들의 의미를 상호 비교·대조하게 될 것이다.

2. 薛聰의 '方言'

설총이 국어학 분야에 남긴 업적은 다음의 한 구절로 요약된다.

(1)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三國史記 卷第46)

이 문장은 "(설총이) 方言으로 九經을 읽어 後生을 訓導하였고 지금도 學者들이 (설총을) 우러른다"로 해석된다.[1)]

이밖에도 설총에 관한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 몇 가지만 간추려 보기로 한다.

(2) 가. 弘儒薛侯製吏書 俗言鄕語通科隷 (帝王韻紀 李承休)
나. 三韓時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 (大明律直解 金祗의 識文)
다.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訓民正音 鄭麟趾 後序)
라.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崔萬理 上疏文)
마. 汝等 以薛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 (世宗實錄 卷103 19張)

이 예로 보아도 薛聰이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승휴, 김지, 정인지, 최만리 그리고 세종 등이 모두 설총이 方言文字 또는 吏書, 吏道, 吏讀를 만들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논의를 전

1) '宗之'를 '宗主로 삼는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개하였다. 이처럼 이두를 설명한 기록에는 항상 설총이 등장한다.

이 기록에서는 한결같이 설총이 창안한 바를 方言文字와 吏書, 吏道, 吏讀로 칭하고 있다. 그런데 (1)의 '방언' 자리에 이들을 넣어 (1)을 번역하다 보면 갑자기 당황하게 된다. 경전을 읽을 때에는 吏讀로 읽는 것이 아니라 口訣을 달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의 方言이 (2)의 吏讀와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口訣과 같은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1)의 方言에 대하여 이기문(1972:52)는 "口訣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이후에 舊譯仁王經上의 釋讀口訣이 발견됨으로써(심재기 1975) 석독구결이 (1)의 方言에 가장 가까운 것임이 드러났다.

다음 기록도 (1)의 방언을 석독구결로 재해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薛翰林强變於斯文 煩成鼠尾之所致者歟 (均如傳 崔行歸 序)

崔行歸는 '薛翰林(즉 설총)이 한문을 애써 바꾸려 했어도 결국 쥐꼬리를 만들어서 공연히 장벽을 만들었을 뿐'이라고[2] 평설하였다. 여기에서 설총이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에 석독구결을 이용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다음 기록은 이러한 전통이 적어도 12세기 중엽까지는 지속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4) 是時 孫氏蠶經始行于世 然讀者莫曉其意 公以方言釋之 奏取朝旨頒諸中外 遂興養蠶之法 (林景和墓誌銘, 1159년)[3]

---

2) 번역은 최철·안대회(1986)을 참고하였다.

3) 이는 이승재(1992:34)에 이미 소개된 것이다. 이를 잠깐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에 손씨가 잠경을 세상에 처음 베풀었지만 독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公(임경화)이 방언으로 이 잠경을 풀어 읽고 조정에 주청하여 중앙과 변두리에 반포한 뒤에 양잠법이 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方言으로 蠶經을 풀어 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의 방언도 설총이 九經을 풀어 읽은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1)과 (4)의 方言을 일단 석독구결로 대체하여도 의미가 어그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총 시대의 方言의 한 예로 다음과 같은 字吐 석독구결을 예상할 수 있다.4)

(5) 汝ㄱ 今ソㄱ 所乙有ㅿメㄱ悉氵 當八 與ソロㆆ立ソ厶ㄱㅣ十我ラナ (華疏 10: 7-8)

원문 '汝今所有悉當與我'에 (5)처럼 吐를 단 것은 이 문장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고 우리말로 새겨 읽었음을 보여 준다. 이때 文字로는 'ハ, ㄱ, 乙, 氵' 등의 省劃 口訣字가 쓰였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이 생획 구결자는 석독구결의 字形을 대표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까지 흔들림 없이 사용되었다.

漢語 문장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고 漢字를 우리말 단어로 풀어 읽는 것은 설총의 방언이나 (5)의 예나 같을 것이다. 그러나 설총이 이미 'ハ, ㄱ, 乙, 氵'와 같은 省劃字를 만들어 사용하였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답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字形이 10세기라면 몰라도5) 8세기 초엽까지 소급된다는 증거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총의 방언을 최근에 발견된 符號口訣(이승재 2000) 또는 點吐口訣(남풍현 2000나)와 동일시할 수도 있다. 부호구결은 한자를 '□'로 간주하여 그 안쪽과 바깥쪽에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 우리말 형태나 음을 나타낸 것으로서 석독구결의 일종이다. 부호구결 혹은 점토구결의 한 예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4) 자토 석독구결은 후술할 점토 석독구결과 구별된다. 이에 대해서는 남풍현(2000나)와 이승재(2001)을 참고하기 바란다. (5)의 위첨자는 右側吐이고 아래첨자는 左側吐이다.

5) 최근에 학계에 공개된 晉本華嚴經 卷第20(성암고서박물관 비장본)에 생획 구결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문자 구결자로는 最古의 자료이다.

(6) 讚歎稱揚見佛[·]11 [-]14 [\]09 [|]05 之行[·]16 [·]02? [·]22 (주본 화엄경 22: 5,23)[6]

이 예에서 중요한 것은 '[·], [-], [\], [|]' 등의 점과 선이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설총이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때 이와 같은 점과 선을 이용하였을까? 이러한 부호 사용이 확인된 자료는 10세기 이후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역시 대답하기 어렵다.

생획 구결자든 부호든 文字論的으로는 원래의 漢字와 성격이 다르다. 생획 구결자는 대부분 한자의 일부나 초서체를 딴 것이므로 變形이 심하다. 부호는 지금까지의 문자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므로 일반적인 한자의 字形과는 역시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데 최만리는 (2라)에서 설총의 방언을 이두라 칭하면서 중국에서 통용되는 문자를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두는 字形이 한자와 같아서 이두를 그대로 사용하면 한자 학습에 유용하고 나아가서 興學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즉 앞의 논의에 따르면 설총의 방언이 생획 구결자나 부호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최만리는 설총의 방언이 한자로 표기된 것처럼 말하였다.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자론적으로 자못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난제를 풀어 주는 결정적인 자료로 안병희(1987)이 자세히 다룬 바

---

6) 여기에서는 점과 선의 종류를 [ ]안에 적고, 그 위치는 다음 點圖의 숫자로 표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이승재(2001)을 참고하기 바란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있는 均如의 方言本 저술을 들 수 있다.

(7) 或 有如 佛性隱 闡提人隱 有亖亦 善根人隱 无如好尸丁 或 有如 佛性隱 善根人隱 有亖亦 闡提人隱 无如好尸丁 (釋華嚴教分記 3:29)

균여의 방언본에서는 吐의 표기에 '如, 隱, 亦, 好' 등의 漢字 字形이 이용되었다. 字形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은 한자와 같다. 이를 논거로 삼으면 설총의 방언은 한자의 자형을 그대로 빌려서 표기한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추정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鄕歌 表記를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불려진 향가는 漢字 字形을 빌려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균여의 방언본은 석독구결 자료 중에서 한자 자형을 직접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방언본을 편집하면서 削方言釋記, 削方言本, 親削方言, 削去方言, 刊削羅言하였다는 사실(안병희 1987)도 아주 중요하다. 균여가 방언으로 저술 활동을 하였다는 점과 방언으로 경전을 해석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설총의 방언이 석독구결에 가까웠음(남풍현 1988)을 방증해 주기도 한다.

3. 古代의 '方言'

그렇다고 하여 古代의 方言이 석독구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1)과 (4)의 문맥에 쓰인 방언은 석독구결에 해당하지만 다른 문맥에 쓰인 방언은 석독구결로 해석되지 않는 예가 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8)은 三國史記와 그 이전의 자료이고 (9)는 三國遺事와 그 이후의 자료이다.

(8) 가. 吾願爲阿彌[7][方言□母][8]之子 (雙谿寺 眞鑒禪師碑 887년)
나. 阿孩[方言謂兒與華无異] (聖住寺 朗慧和尙碑 890년)
다. 南解次次雄 [次次雄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三國史記 卷第1 南解次次雄)
라. 訥祇麻立干 [金大問云 麻立者 方言謂橛也] (三國史記 卷第3 訥祇麻立干)
마. 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正尊號 今群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 (三國史記 卷第4 智證麻立干)
바. 九州所管郡縣無慮四百五十[方言所謂鄕部曲等雜所] (三國史記 卷第34)

(9) 가. 沙涿漸涿等[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道]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나. 今記新羅事 具存方言 亦宜矣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다. 努肹夫得 … 怛怛朴朴 … [… 二士之名方言 二家各以二士心行騰騰苦節二義名之爾] (三國遺事 卷第第3 塔像第4)
라. 嘉瑟岬[或作加西又嘉栖皆方言也] (三國遺事 卷第4 圓光西學)
마. 小名憂助[盖方言也] (三國遺事 卷第4 二惠同塵)
바. 元曉亦是方言也 (三國遺事 卷第4 元曉不羈)
사. 一男■■ 年九改名迪 二男■■ 年八改名贊 三男■■ 年七改名用 幷只 節付印 … [■■ 方言小兒之稱] (咸昌金氏准戶口 1336년)

---

7) 원래는 '彌'의 하변에 '女'가 있는 글자이나 컴퓨터 인쇄의 제약으로 이렇게 적었다. 이 '阿〔彌+女〕'는 淨土寺 法鏡大師碑(943년)에서도 쓰인 바 있다.

8) 이 부분은 夾註에 해당하므로 原文에서는 두 줄로 배열하였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협주를 [ ]로 묶고 한 줄로 배열하였다. 다음 예도 이와 같다. □는 (8나)의 예로 보아 '謂'로 채울 수 있다.

(8가)와 (8나)는 崔致遠이 '阿彌(〉어미)'와 '阿孩(〉아히)'가 한문이 아니라 방언임을 註記한 것이다. 특히 '阿孩'는 우리말과 華語가 같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14세기 초반기에는 이밖에도 '■■ '가 쓰였음을 (9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8다)와 (8라)에서는 金大問의 기록을 인용하여 '次次雄, 慈充'과 '麻立'이 방언이라고 하였다. (8마)는 이들 방언으로 王을 칭해 왔음을 지적하고 尊號를 '王'으로 바꾼 경위를 기록한 것이다. 一然은 (9나)에서 이러한 방언을 기록하여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崔致遠이 한문식인 '某王'으로만 지칭한 것을 비판하였다. (8바)와 (9가), (9라)는 地名이, (9다)와 (9마) 그리고 (9바)는 人名이 方言으로 지칭된 예이다.

이 예들을 종합해 보면 인명, 지명, 관명 등의 語彙表記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方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방언을 釋讀口訣과 동일시한 것이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잡은 것임을 말해 준다. 古代의 여러 자료에 나오는 방언은 석독구결과 어휘표기를 아우르는 것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방언이 우리말 또는 우리말 표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방언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함을 증언해 주는 자료로 다음의 기록을 들 수 있다.

(10) 聰 …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絶 (三國遺事 卷4 元曉不羈)

여기에서는 설총이 方音으로써 중국과 우리의 物名을 通會하였고 六經文學을 訓解하였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설총이 어휘표기의 일종인 物名까지도 方音으로 通會하였음을 증언해 준다. 따라서 고대의 방언이 단어에서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말 또는 우리말 표기를 두루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의 예에서 '傳受不絶'이라 한 것으로 보아 一然의 시대 즉 13세기 후

반기까지도 어휘표기나 석독구결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표기가 시작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金大問의 생몰연대가 7세기 말과 8세기 초에 걸친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김대문은 聖德王 三年(704년)에 漢山州 都督에 임명되었으므로(삼국사기 권제46) 마침 薛聰과 생몰연대가 비슷하다. 김대문이 語彙表記에 방언을 사용하였다면 설총은 어휘표기뿐만 아니라 文章表記의 일종인 釋讀口訣에도 방언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同時性을 강조하면 7세기 말과 8세기 초의 시기는 우리 文字史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정인승 1957, 안병희 1984). 이 시기에 한문이 아닌 우리말 표기가 널리 퍼져 있었고, 이를 드러내어 밝히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설총이나 김대문의 시기보다 한 세대 앞서서 이미 이러한 표기가 시작되었다는 논의도 있다. 남풍현(1988)은 다음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義湘 또는 元曉의 시기 즉 7세기 후반까지 석독구결이 소급한다고 하였다.

(11) 但以當時集者 未善文體 遂致章句鄙野 雜以方言 或是大教濫觴 務在隨機耳 將來君子 宜加潤色 (新編諸宗教藏總錄)

대각국사 義天이 宋 僧史의 義湘傳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義湘의 글을 모은 편집자의 문장에 방언이 섞여 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우리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록을 남긴 義天도 우리말로 경전을 번역하는 데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 인물(남권희 1997:151)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8-9)의 어휘표기 예들에서는 방언을 기록한 字形이 모두 漢字이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방언의 폭을 넓게 잡아야 함을 암시한다. 결론 삼아 '방언'이 포괄하는 의미를 간단한 표로 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方言 { 어휘(표기) — 인명, 지명, 관명, 물명 : 한자
문장(표기) { 석독구결 : 한자, 생획 구결자, 부호
향찰 : 한자
이두 : 한자 }

鄕札을 '方言'으로 지칭한 예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鄕語'로 지칭한 예가 나온다.

(13) 가. 然而詩構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鄕語 切磋於三句六名 (均如傳)
나. 鄕札似梵書連布 彼土難諳, 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鄕謠 (均如傳)

(13가)에서 향가는 '鄕語'를 배열해서 三句六名으로 다듬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향어는 어휘표기의 방언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이 때의 향어는 배열되는 것이므로 문장을 전제로 한다. (13나)에서도 향찰은 梵書가 죽 펼쳐진 것과 같아서 중국인들은 鄕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향찰이 우리말 문장표기의 일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方言으로 鄕札을 아우를 수 있다.

吏讀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다. 다음의 두 기록은 이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

(14) 가. 古人 成之 東海攸友邊 散也〔古人成之以下 文未祥其意 但存古文而已 下同〕(三國遺事 卷第3 塔像第4)
나. 開元七年歲在己未二月十五日 奈麻聰 撰奉敎 沙門釋京融大舍金驟源□□□ 亡考仁章一吉飡 年卌七 古人 成之 東海欣支邊 散也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720년)

(14가)의 '古文'은 밑줄 친 '古人 … 散也'를 지칭한 것으로서 옛날의 글을 뜻한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문장이 (14나)에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만약에 一

然이 (14가)의 '古文' 대신에 '方言'이나 '鄕言'으로 지칭하였다면 나아가서 '吏讀'나 '鄕札'로 지칭하였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졌을 것이다.

(14)의 '古人 成之 東海攸友(또는 欣支)邊 散也'는 一然이 문장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 예가 우리말 문장임을 뜻한다. 마침 이 문장은 현재의 관행에 따르면 석독구결에 넣기보다는 이두로 간주하게 된다(안병희 1984, 남풍현 2000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부각된다. 이 예에 대해서도 당시인들이 方言이라고 칭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필자는 가능했다고 본다. 첫째 논거는 一然이 문장이 되지 않아 뜻을 모른다고 지적한 점이다. 이는 우리말 문장임을 뜻한다. 둘째 논거로 설총이나 김대문의 시대에는 이와 같은 것을 주로 방언이라 칭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를 撰한 시기는 마침 이들이 살았던 시기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셋째 아직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14나)를 설총이 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점이다(葛城末治 1935, 김민수 1980). 이를 논거로 하여 (14)의 밑줄 친 부분도 당시인들이 방언이라고 지칭했으리라 추정해 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어휘표기, 석독구결, 향찰, 이두 등이 모두 方言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古代의 方言은 곧 현재 학계의 借字表記와 동의어가 된다.

4. 유사 지칭어

'方言'과 유사한 지칭어로는 '鄕言, 俚言, 夷言, 方音, 鄕音, 俗訓, 俗文' 등이 나온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鄕言'이다.

(15) 가. 赫居世王〔盖鄕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나. 故因其言 以閼智名之 閼智卽鄕言小兒之稱也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다. 毛祿家〔 … 彡麽者乃鄕言之稱僧也 猶言沙彌也〕(三國遺事 卷第3 興法第3)

라. 夫蓋寺乃簣之鄕言也 (三國遺事 卷第4 二惠同塵)

마. 元曉 … 當時人皆以鄕言稱之 (三國遺事 卷第4 元曉不羈)

바. 惱叱古音〔鄕言云報言也〕(三國遺事 卷第5 廣德嚴莊))

이 '鄕言'은 '方言'과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대표적인 예로 (9사)의 '■■ 方言小兒之稱'과 (15나)의 '閼智卽鄕言小兒之稱'을 들 수 있다. 또한 (9바)의 '元曉亦是方言也'와 (15마)의 '當時人皆以鄕言稱之'가 바로 연결된 문장이라는 점도 '方言'과 '鄕言'이 同義語임을 뜻한다.

이것은 '方音'과 '鄕音'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16) 馱髑〔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馱也 髑頓道覩獨等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馱髑 又馱覩等也〕(三國遺事 卷第3 興法第3)

(17) 昏昏間 如聞鄕音與哭泣之聲 見之乃已屈 (三國遺事 卷第3 敏藏寺)

이 '方音'과 '鄕音'도 결국은 우리말을 지칭한 것인데 문자 언어가 아니라 음성 언어임을 강조할 때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鄕言'은 三國史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三國遺事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2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승휴의 帝王韻紀에서는 '鄕語'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13세기 후반기가 '鄕言, 鄕語'가 새로 등장하는 時期임을 뜻한다. 즉 13세기 후반기에 '方'字 대신에 '鄕'字를 이용하는 관습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 시기는 석독구결이 송독구결로 교체되는 시기와 일치하므로 아

주 흥미롭다. 이 점에서 (10)의 예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설총의 업적을 기록한 이곳에서는 '方言'이 '方音'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13세기 후반기에는 '方言'으로써 석독구결을 지칭하는 용법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음을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서는 '方言'이 모두 어휘표기를 지칭할 때에만 쓰였다.[9)]

'俚言'과 '夷言'도 쓰였는데 이들은 우리말을 낮춰 부를 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의 용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方言'이나 '鄕言'에 비하면 용례가 아주 적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8) 가. 俚言怛忉 言悲愁而禁忌百事也 (三國遺事 卷第1 射琴匣)
나. 路傍樹至今名見郎 又俚言似如樹〔一作印如樹〕 (三國遺事 卷第3 塔像第4)
다. 婢一更舂畢 歸寺念佛〔俚言己事之忙 大家之舂促 盖此出乎〕 (三國遺事 卷第5 感通第7)

(19) 伊伐湌伊湌等者 皆夷言 不知所以言之之意 (三國史記 卷第38)

물론 '俚諺'과 '鄕諺'도 사용되었으나 이들의 용례도 아주 적다. 이들은 '世俗에서 떠돌아 다니는 말'을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다. 즉 '俗說' 또는 '俗談'과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전통은 朝鮮祖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

(20) 가. 故俗云墮死岩 斯乃俚諺之訛也 (三國遺事 卷第1 太宗春秋公)
나. 俚諺多 以荒唐之說托焉 可笑 (三國遺事 卷第4 蛇福不言)

9) 여기에서는 '方言'과 '鄕言, 鄕語'의 차이를 시기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김부식의 史觀이 일연이나 이승휴의 사관과 서로 달랐던 데에서 이 차이가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1) 鄕諺之無據耶 (三國遺事 卷1 16面) ??

'俗'字가 들어간 명칭으로는 (2가)의 '俗言'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우리말을 뜻하는 것 같다. 다음의 '俗訓', '俗文'도 기억해 둘 만하다. '俗訓'은 물론 우리말 새김을 가리키고 '俗文'은 우리가 만든 글자를 지칭한다.

(22) 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 以此故也〕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23) 新畓坪〔… 畓乃俗文也〕 (三國遺事 卷第2 紀異第2)

5. 마무리

지금까지 古代의 '方言'과 그 유사 지칭어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총의 '방언'은 석독구결에 가장 가깝다. 석독구결의 표기에는 생획 구결자, 부호, 한자 등이 이용되는데, 이 중에서 한자 자형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둘째, 고대의 '방언'은 석독구결뿐만 아니라 어휘표기, 향찰, 이두 등에도 두루 대응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고대의 '방언'은 우리말 또는 우리말 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차자표기 또는 차자표기로 적힌 우리말에 대응한다.

셋째, 고대의 '방언'은 '鄕言'과 동의어이다. 특히 삼국유사에서 '향언'으로 지칭한 예가 많았다. 새로운 용어인 '향언'과 '향어'가 13세기 후반기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언어 변화의 시기와 관련하여 흥미롭다.

이 글의 논지에 따르면 현재의 '차자표기'는 고대의 '방언'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 '방언'을 살려 학술용어로 사용하면 dialect를 뜻하는 '방언'과 구별되지 않는다. 마침 김완진(1996:433)은 '鄕讀'과 '鄕字'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말 또는 우리말 표기를 두루 지칭할 때에는 '鄕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에 따르면 '차자표기'와 '차자'는 각각 '鄕言'과 '鄕字'로 바꾸어 칭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민수(1980). 「奈麻 薛聰의 吏讀文에 대하여」.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김완진(1996). 『음운과 문자』. 서울대 출판부.

남권희(1997). 「차자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남풍현(1988). 「석독구결의 기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남풍현(2000가). 『이두연구』. 태학사.

남풍현(2000나). 「고려시대의 점토구결에 대하여」. 『서지학보』 24. 한국서지학회.

심재기(1975). 「구역인왕경상 구결에 대하여」. 『미술자료』 18.

안병희(1984). 「차자표기법의 형성과 특징」. 『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안병희(1987). 「균여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 (개정판)』. 민중서관.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국어학총서 17. 태학사.

이승재(2000). 「새로 발견된 각필(角筆) 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이승재(2001). 「주본 『화엄경』 권제22의 각필 부호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정인승(1957). 「이두 기원의 재고찰」. 『일석이희승선생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최철·안대회(1986). 『역주 균여전』. 새문사.

葛城末治(1935).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